

지방銀도 中企지원 팔걸어... 3000억 조성 '기업살리기'

(대구은행 최대)

경제전쟁 전면전

지역 대다수 제조업 비중 높아
기업 피해 지역경제 악화 우려
최대 연 2.0%p 금리 감면 지원

지방은행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책 마련에 분주하다. 지방은행이 거점을 두고 있는 지역 대다수가 제조업 비중이 높아 기업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기업의 피해가 지역경제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방은행은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따라 중소기업에 최대 30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 지원과 최대 연 2.0% 포인트의 금리감면을 지원한다.

일본의 통제대상 품목 목록을 보면 전략물자 분야는 무기, 원자력, 전자, 통신, 항법 장치, 추진장치 등이다. 이 물자는 다양한 산업 군에 사용되기 때문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자업종과

〈지방은행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방안〉

구분	BNK금융그룹		DGB금융그룹	JB금융그룹	
지방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지원자금	긴급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 -직접피해기업 5억원, 간접 피해기업 3억원 -최대 2.0%p금리감면 -대출금 만기도래시 기한연장, 분할상환금 유예	긴급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 -직접피해기업 5억원, 간접피해기업 3억원 -최대 2.0%p금리감면 -대출금 만기도래시 기한연장, 분할상환금 유예	긴급 경영안정자금 3000억원 -구체적 방안 마련 중	긴급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 -한 기업당 최대 20억지원 -최대 1.2%p 금리감면 -대출금 만기도래시 기한연장, 분할상환금 유예	긴급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 -한 기업당 최대 20억지원 -최대 1.2%p 금리감면 -대출금 만기도래시 기한연장, 분할상환금 유예
지원활동	-영업점 상시 지원체계 도입	-영업점 상시 지원체계 도입	-영업점 상시 지원체계 도입	-영업점 상시 지원체계 도입	-영업점 상시 지원체계 도입 -포용금융센터·기업컨설팅팀 피해현장 파견

/자료=각 사

자동차, 화학, 기계 업종 등 제조업으로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 현재 전국 대비 거점지역 제조업 비중은 44%로 일본이 제품의 수출을 일부로 지연시키거나 수출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각각 10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마련하고 대출금리 감면을 실시한다. 직접 피해기업은 5억원, 간접 피해기업은 3억원 이내로 자금을 지원하고, 신규자

금 대출 시 최대 2.0%포인트 금리를 감면해 준다.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가 해소될 때까지 만기 도래하는 대출금은 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도 유예할 수 있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또 수출입 관련 외환수수료를 우대하고 지역보증재단과 협의해 준 재해·재난 특례보증 특별대출도 지원한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수출규제로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을 위해 비상대책반

을 구성했다"며 "금융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금융지원과 금융시장 대응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은행은 긴급 경영안정 자금으로 3000억원을 지원한다. 단, 기업 당 최대 지원 규모와 특별금리 우대수준은 조만간 확정지를 계획이다. 대출금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에겐 원금 상환 없이 무기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분할상환금 유예도 가능하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현재 영업점을

중심으로 피해현황을 확인하며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피해 기업이 있다면 가급적 승인하는 방식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수출규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1000억원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에는 최대 2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특별우대금리도 최대 1.2%포인트 적용한다. 대출금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의 경우는 원금 상환 없이 기한을 연장하고 분할상환금 유예도 제공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현재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듣고 있다"며 일본의 부당한 규제조치에 지역의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속하게 피해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지방은행(경남 부산 대구 전북 광주)들은 피해 기업의 금융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접수 처리할 수 있도록 전 영업점에 상시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교보생명 60년 여정, 한 권의 책으로

교보생명은 7일 창립 61주년 기념일을 맞아 지난 60년간의 성장사를 담은 '교보생명 60년사'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사(社史)는 이해관계자 경영을 실천하며 생명보험 외길을 걸어온 교보생명의 역사를 조명하고자 편찬됐다. '국민교육진흥'과 '민족자본형성'이라는 창립이념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와의 공동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60년 여정을 한 권의 책에 담아낸 것이다.

교보생명의 탄생은 지난 195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용호 교보생명 창립자는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를 설립해 세계 최초의 교육보험인 '인학보험'을 선보였다. 또 국내 최초로 퇴직보험과 암보험을 개발하고 계약자배당금 시대를 여는 등 보험업계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한국 보험산업을 세계 8위권으로 성장시키는 데 공헌을 했다.

1958년 설립 당시 자본금 2억원(2000만원)으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총 자산이 112조원이 넘는 대형 생명보험사로 도약했다.

사사는 2년여간의 기획과 편찬 과정



교보생명이 7일 창립 61주년 기념일을 맞아 지난 60년간의 성장사를 담은 '교보생명 60년사'를 발간했다. /교보생명

을 거쳐 완성됐다. 교보생명의 역사와 성장 스토리를 담은 역사서 '교보생명 60년사'와 이해관계자 경영철학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녹여낸 문화도서 '참사람을 꿈꾸며'로 구성됐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사사 발간을 통해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회사가 걸어온 발자취와 성과를 기록하고자 했다"며 "도전과 혁신의 60년사를 구성원,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해 미래를 준비하는 발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

연임 vs 교체... 케이뱅크 수장은 누구?

행장 선임절차 개시

연임·교체 쉽게 예단하기 힘들어
내달 23일 주총에서 최종 결정

케이뱅크가 차기 행장에 대한 선임절차를 시작했다.

다음달 23일 예정된 주주총회까지 한 달 반 가량이 남았지만 연임과 교체 모두 쉽게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당초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오르려던 KT의 대주주 적격 심사가 무기한 중단된 데다 증자나 신규 주주 영입 등 자본 확충 문제도 걸려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이날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차기 행장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를 논의한다. 일정 조율을 시작으로 롱리스트(1차 후보군)와 숏리스트(최종 후보군) 선정, 면접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서 다음달 23일 주총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케이뱅크의 임추위는 최승남 위원장을 비롯해 사외이사 성낙일, 이현철, 홍종팔, 최용현 등 총 5명으로 구성돼 있



케이뱅크 심성훈 행장

/케이뱅크

다. 케이뱅크의 지배구조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최고경영자 후보군은 총 7명이며, 향후 경영승계절차 개시 시점에 주주사, 외부자문기관 등의 후보군 추천이 있을 경우 후보군을 추가 및 변경해 나갈 계획이다.

케이뱅크의 행장 임기는 3년이며, 연임도 가능토록 해놨다.

심 행장은 케이뱅크 출범을 책임진 초대 행장인 만큼 규정상 연임이 가능하다. 인터넷전문은행 1호로 영업성과도 출범 초기에는 예상을 뛰어 넘었다.

문제는 자본 확충이다. 케이뱅크는 지난 12월 276억원 규모의 전환주 유상

증자를 마무리 했지만 공격적인 영업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증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출 영업도 아직 재개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KT의 자본 투입은 당분간 바랄 수 없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이유로 케이뱅크에 대한 KT의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중단키로 한 바 있다.

케이뱅크는 주요 주주사인 우리은행과 DGB금융(DGB캐피탈) 등에 증자를 요청한 것은 신규 주주 영입 등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 중이다.

/안상미 기자 smahnt@

통화 중 '음성·진동' 보이스피싱 막는다

기업은행 'IBK피싱스톱' 서비스

IBK기업은행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보이스피싱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앱(App) 'IBK피싱스톱' 서비스를 시작한다.

기업은행은 7일 금융감독원,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IBK피싱스톱 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IBK피싱스톱'은 통화 도중 보이스 피싱 사기 확률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

면 경고 음성과 진동으로 알려준다.

기업은행은 지난 3월부터 고객과 직원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통해 앱의 효과와 안정성을 검증했다. 총 7만4000여 건의 통화를 분석해, 총 339건의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탐지하고 약 30억8000만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IBK피싱스톱'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 IBK피싱스톱을 다운로드 받거나, 스캔차단 앱인 '후후'를 업데이트 해 사용하면 된다.

/나유리기자

우리은행, 소상공인 편의성 제고... '모바일 비대면 통장'

'우리사장님e편한통장'

우리은행은 7일 개인사업자 전용 비대면 통장인 '우리사장님e편한통장'을 출시했다.

우리사장님e편한통장은 은행 방문 시간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한 상품으로 모바일로 개설 가능하다.

고객은 스마트폰에서 별도 애플리케이션 설치없이 우리은행 모바일웹에 접속해 비대면 인증절차를 거쳐 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일반 OTP나 디지털 OTP를 이용해 이체 등의 거래를 할 수 있다.

디지털 OTP는 우리은행 원터치뱅킹 앱의 비대면센터 메뉴를 통해 신청 및 설치 가능하다.

우리사장님e편한통장은 사업자등록

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50만원 이상의 잔액을 7일 이상 유지할 경우 연 0.3%의 금리가 제공된다. 각종 매출대금(신용카드, 계좌페이, 온라인플랫폼 가맹본부, 결제앱 등)을 우리은행 전자금융수수료, ATM이용수수료 등이 면제된다.

/홍민영 기자 hong93@